

천국에서 지옥으로

서경태

IAEA 핵물질사찰관

「천에서 지옥으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문득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났다.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랑과 고민, 두려움, 권력 남용, 불륜, 부조리 등 인간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생생히 나타낸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영화 이후 텔레비전에서 미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고, 내용면에서는 최초의 원작과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최근에도 「Pearl Harbor」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이라크에 나가있는 자이툰 부대원들도 아무 사고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글이 많이 옆으로 새어 나갔다. 이제 '천국에서 지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말은 필자의 동료로 지난해까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물질 보장조치 사찰관으로 근무하던 한 미국인이 인도를 방문하고 온 후에 한 말이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너무 자부심이 강하여 오만하게 보이기도 한 젊은 미국인이, 인도의 한 지역을 처음 다녀오며 느낀 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천국에서 지옥으로의 짧지 않은 여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도로 가는 길

인도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여야 한다. 처음 하여야 할 것이 말라리아 약을 먹는 것이다. 일년 365일 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몬순이 끝난 후 곳곳에 물이 고이는 시기에는 모기가 창궐하여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꼭 먹어야 한다.

말라리아 약은 가기 2주 전부터 먹기 시작하여, 체제 기간 동안 매일, 그리고 다녀온 후 4주간을 더 먹어야 한다. 체제 기간에는 한 가지 약이 더 추가된다.

또한 여러 가지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등.

기온이 높아 옷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마실 것과 먹을 것 등 여러 가지 음식물을 여행 가방 가득히 채운다.

검증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모기가 참나무(Oak)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여 오크통에서 숙성된 위스키도 한 병 준비한다.

황석영 작가가 북한을 방문한 후에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필자도 “인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기도 없고, 수도물도 없고, 많은 설비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매일 몸을 씻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곳을 다녀오면,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을 수 있다. 아무 것이나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비엔나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노력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심어준 부모님에게도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더욱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비행기표, 여권, 돈, 관련 서류, 사찰 장비 등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 드디어 출발이다.

식민지의 냄새, 터번, 대리석 욕실, 팁 ...

비엔나공항에서 아침에 출발한 비행기는 밤에 델리공항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뉴델리의 임페리얼 호텔에 여장을 푼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이름에 걸맞게 식민지 시대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호텔이다.

정원에는 야자나무가 푸른 잎을 펼치고 있고, 곳곳의 라운지에는 천정 선풍기가 한가로이 돌고 있고, 야외 라운지에는 대나무로 만든 식탁과 의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도어맨들이나 웨이터들은 인도 전통의 터번을 쓰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흰장갑을 끼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녀 구분없이 머리에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바르고 우아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는다.

우리나라 6, 70년대에 조선 호텔이나 워커히 호텔 등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모습과 비슷하고, 초라한 모습의 손님들은 깔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자신들은 고고한 척 한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여러 곳의 호텔에서 자 본 경험이 있는 필자도 그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별실이 딸려있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있는 방에서 위성 수신기를 통해 텔레비전을 본다. 한국의 아리랑 방송도 볼 수 있다. 휘장이 쳐진 침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대리석으로 치장한 욕실에서 목욕을 한다.

뷔페식 아침을 우아하고 간단히 먹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이날 오후를 생각해서 든든히 먹어둔다. 접시를 많이 쓰면 웨이터들에게 눈치를 보일까 봐,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쓰던 접시를 계속 쓴다.

체크아웃을 위해 방을 나서면서 팁을 얼마를 놓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체크인 할 때 포터에게 1달러를 주었는데, 그다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1달러 정도의 팁을 베개 위에 놓고 재빨리 나선다. 머뭇거리다가는 포터의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 영광 없이 팁을 또 주어야 한다.

체크아웃을 한 후, 택시를 탄다. 택시를 탈 때, 포터가 가방을 택시에 실어주지만, 급한 척하고 빨리 택시에 오른다. 그래야 팁을 떼어먹을(?) 수가 있다.

수십명의 포터, 연착의 기차

택시가 출발하고, 잠시 후 기차역에 도착한다. 택시가 서자마자 주홍색의 치마만을 두르고 같은 색의 터번을 쓴, 죽히 수백명은 되어 보이는 반라의 포터들 중에서 수십명이 서로 짐을 들겠다고 몰려든다.

아우성 끝에 승리를 쟁취한 포터가 우리들의 가방

을 택시에서 내린다. 한 사람은 가방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택시비를 지불한다.

우리 가방은 온갖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차, 각각 30킬로는 족히 된다.

특 치면 부러질 것 같이 야윈 포터가 이런 가방 두 개를 머리에 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간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탈 기차의 플랫폼은 역 안에서도 제일 멀리 있다. 포터는 구름다리를 두 개나 오르고 내린다. 그것도 엄청 긴 구름다리를.

플랫폼에 도착하자, 포터가 가방을 우리 앞에 내려 놓고 돈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렵도 없는 일. 서비스는 서비스이다. 기차의 우리 좌석까지 가방을 옮겨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포터가 은근슬쩍 한번 돈을 일찍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 우리가 뜨내기 여행객이 아닌 것을 안 후에는 체념을 하고 조용히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인도의 기차는 정시에 올 때가 아주 드물다. 이 날도 평상시대로 약 40분 늦게 도착했다. 우리가 탈 기차는 4,50량이 달려있는 긴 기차에서 단 하나뿐인 일등칸이다.

이 일등칸은 몇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방에는 침대가 양쪽 벽에 한 개씩 두 개가 있다. 실제로는 네 개이지만, 위쪽의 두 개는 접어서 벽에 붙여 놓았다.

포터가 우리들의 짐을 방안의 침대 밑에까지 넣어 주고는 팁을 요구한다. 미화 8달러, 가방 한 개당 4달러이다. 포터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더 요구한다.

포터가 구름다리를 건너고, 기차가 올 때까지 일을 못하고 기다린 것을 감안하여 10달러를 주려고 하자, 버릇(?)을 잘못 들이면 다음의 여행객들이 피해를 본다며 인도 여행을 많이 한 동료가 말한다. 결국

8달러만 손에 받은 포터는 씩 한번 웃고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돌아간다.

뿌연 소독약의 연막 속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크레졸(소독약의 일종) 냄새가 진하게 나는 방안을 둘러보는 것도 잠시, 동료가 가방 안에서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꺼내 든다. 벌레를 잡으려는 것인지 사람을 잡으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 아낌없이 뿌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뿌연 연막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잠깐 방 밖으로 나와 기차의 다른 칸들을 살펴본다. 1970년대 광주 송정리에서 여수로 가는 비둘기호가 생각난다(콘서트 7080을 즐기는 세대들이나 이해를 할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방으로 돌아오니, 방안에 있던 동료가 약 기운 빠지니 들락거리지 말라면서 편잔을 준다.

잠시 후, 평상복을 입은 차장이 표 검사를 위해 들었다. 표 검사를 마치고 나가자 동료가 다시 약을 뿌린다. 너무한단 싶지만, 꼭 참는다.

인도의 내륙을 기차가 덜컹거리며 달린다. 바깥 풍경은 숲이 없이 탁 트인 벌판이다. 집도 보이지 않고 잔풀들만 무성하다.

차장이 방문을 노크한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쟁반을 들고 왔는데, 그 위에는 누린색의 물수건과 차 주전자가 놓여있다. 쟁반을 창문 밑에 달린 접이식 탁자에 놓으면서, 저녁 식사를 주문하라고 한다.

아무 것도 필요없고 내일 아침에 뜨거운 차만 가져다 달라고 하자, 기쁜 표정을 지으며 나간다. 동료가 다시 스프레이를 꺼내려고 해서, 그만 뿌리라고 했더니 가방을 그냥 닫는다.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동료가 생수병을 꺼내서 조그만 유리잔을 닦으려고 한다. 필자가 가방에서 일회

용 종이컵을 꺼내자, 동료가 준비를 철저히 해 왔으며 칭찬을 한다. 동료의 걱정이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몸에 대해 걱정도 된다.

과거에는 수돗물이나 우물물을 그냥 마시고, 심지어는 개울물을 마셔도 아무 탈이 없지 않았던가? 별례에 물려도 심하게 부어오르지 않으면 그냥 두거나 소금물로 씻는 것이 최고의 치료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이상한 것을 먹어도 즉시 배탈이 난다.

끝없는 별판, 길가의 용변

어쨌든 종이컵에 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바깥 풍경은 변함없이 별판이다. 간간이 멈춰서는 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하지만 타고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크게 다르지 않은 바깥 풍경이 무료해 가방에서 책을 꺼낸다. 집에 있는 몇 권 안되는 한국 소설책들 중의 하나이다. 방 귀퉁이에 붙어있는 조그만 백열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희미하다. 몇 페이지 밖에 읽지 않았는데 눈이 침침해진다.

책을 도로 집어넣고 위스키 병을 꺼낸다. 비스킷과 초콜릿도 꺼낸다. 필자가 주섬주섬 먹을 것을 꺼내자 동료도 먹을 것을 꺼낸다. 이른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먹다보니, 바깥이 벌써 어둡해졌다. 피곤도 하고 술기운도 오르고 해서 일찍 자기로 했는데,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다.

일찍 잠을 잔 탓에 일찍 깬다. 커튼을 올리니 밖은 흰하다. 동료의 잠을 깨우기 싫어 조용히 창밖을 본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별판이다. 인도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어제 마시다 남은 차는 이미 식었다. 생수병을 꺼내려고 부시려거리자 동료가 잠을 깬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후에 뜨거운 차주전자를 들고 들어온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제 살충제로 인해 미워했던 마음이 뜨거운 차 한 모금과 함께 스스로 녹아 내린다.

간간이 집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역에 기차가 섰다. 플랫폼에 있는 식수대에 터번을 쓴 사람이 팔레를 넣어놓고 앉아 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른 것 같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고 멈춰 섰던 역이 멀어져 간다. 철로 옆으로 잡풀들이 우거져 있다.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하나가 아니고 꽤 많은 숫자이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호기심에 자세히 보니, 대변을 보고 있다. 일, 이 킬로미터는 족히 지난 것 같은데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

기차는 계속 달리고 다시 잡풀들만 보이는 별판이다. 생수병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고양이 세수를 한다. 비스킷 몇 조각과 차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다.

간디도 없애지 못한 계급 사회

마침내 1차 도착지인 코타에 도착했다. 인도의 중북부 내륙에 위치한 코타에 15시간 이상을 달려 온 것 같다.

시설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가방을 빼앗듯이 들고 간다. 역 밖으로 나가니 지프 형태의 반트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의 가방은 가지런히 짐칸에 놓여 있다.

차에 오르자 우리 가방을 옮긴 청년이 문을 닫아 준다. 차 안이 의외로 넓다. 그런데 문을 닫아 준 청년들이 뒤로 가서 짐칸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책임자에게 차 안에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고 짐칸은 위험하니 청년들을 안에다 태우자고 얘기하자, 책임자는 머쓱한 웃음만 짓고 만다. 동료는 필자의 팔을 툭 치며 아무 말도 하지 말한다.

바로 그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고, 네 계층의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최하계층의 청년들은 짐칸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간디도 없애지 못했다는 계급 사회가 뉴 밀레니엄 시대에도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왔다고 하니, 책임자가 코타 시내를 한 바퀴 돌겠단다. 코타는 6,70년대 한국의 중소 도시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시내의 변화가는 조그만 상점들이 여럿 늘어서 있는 곳이었고, 단지 60년대 우리나라의 재래식 시장과 흡사한 시장만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라자스탄으로 방향을 잡았다. 포장 도로인 듯 차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먼지가 뿌연게 일었다.

길가에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멧돼지와 비슷하게 생긴 야생 돼지들이 땅에 코를 박고 먹이를 찾고 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개들이 돌아다니고, 귀가 넓적하고 머리에 뿔이 없는 염소들이 떼를 지어 움직이고 있다.

목이 잘룩한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네 여럿이 서로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거의 헐벗다시피한 아이들이 필자를 보고 손을 흔든다. 인도의 시골 동네 풍경이다.

차는 계속 달리고 도로에서는 먼지가 피어 오른다. 짐칸에 앉은 친구들은 잠을 자는지,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있다.

조그만 동네를 지나면 다시 황량한 벌판이다. 변함 없는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차가 무엇에 걸렸는지 덜컥거리 잠이 깼다.

차는 나무가 제법 우거진 숲속 길을 달리고 있다. 나무들은 인도사람들과 같이 바짝 마른 모습으로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서 있다. 몬순시기가 되면 때를 털어내고 푸른색의 광을 낸다고 한다.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며 호수가 나타난다. 실제로는 저수지를 쌓아 물길을 막아 만든 인공 호수이다. 저수지 위의 도로를 차가 달린다.

시설에서 나온 책임자가 저수지 아래쪽을 가리키며 자세히 보라고 한다. 필자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말로는 악어가 여러 마리 있다고 한다.

“바깥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저수지를 건넌 지 얼마되지 않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설 근처의 직원 사택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였다. 짐칸에 앉았던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서 있다. 가방도 사람도 먼지를 맞아 잿빛이다.

배정된 방안에 들어가니 더운 기운에 숨이 확 막힌다. 창문 밑에 달린 에어컨의 스위치를 올렸다. 에어컨에서 경운기 소리가 난다. 그래도 다행이다. 에어컨이 없으면 방안의 온도는 50도를 넘는다고 한다.

욕실에 들어가니 도마뱀이 세면대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문객을 뚱뚱히 바라보고 있다. 욕실 안에는 눈에 익은 테이프가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이곳에 묵었던 동료 사찰관들이 도마뱀의 출입을 막기 위해 모든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 놓은 것이다.

욕실 안의 샤워기에는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다. 갑자기 찬물이 나올까 두려워 멀찍이 서서 수도꼭지를 튼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나온다. 게스트하우스가 역시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착각은 잠시. 욕실에 설치된 물탱크가 뜨거운 햇볕을 받아 탱크 안의 물이 덥혀진 것이었다.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난 후, 집에서 가지고 간 캔 맥주를 한모금 마시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불을 끄고 일찍 자리에 누웠다. 경운기 소리같은 에어컨 소리가 방안을 울린다. 일어나 에어컨을 꺼본다. 방안이 조용해졌지만, 갑자기 더운 기운이 느껴진다.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자느냐, 더위로 인해 땀을 흘리며 자느냐, 선택은 자유다. 바깥의 많은 사람들은 수돗물도 없고,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는 맨땅 위에서 잠을 잔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하루 세 번씩 삼, 사십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어 오는 여인네 모습이 떠오른다. 머리는 형클어지고 먼지투성이지만,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아이들의 얼굴도 눈에 선하다.

“그래, 시끄러우면 어떻게 더우면 어떠랴! 바깥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로 천국이다.” 점점 잠이 쏟아진다.

모든 곳이 사람 사는 곳,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서 인도가 더럽고, 사람들도 지저분하고, 사회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황석영 작가가 북한을 방문한 후에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필자도 “인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많은 설비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매일 몸을 씻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여 깨끗

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일주일 정도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온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소위 못 사는 나라라는 곳을 다녀오면 주위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는 그런 곳을 다녀오면,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을 수 있다. 아무 것이나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비엔나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노력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심어준 부모님에게도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더욱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과연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고, 12월 31일에는 잊고 싶은 것들과 안 좋았던 기억들을 폭죽을 터뜨려 허공으로 날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능력껏 도움을 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또 다시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연말에 잠깐 생각했던 불우한 처지의 이웃들을 계속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된다.

물질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안된다면 마음으로라도 차별을 없애고 같은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각박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필자는 오늘도 생각해 본다. 과연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 ☺